안테나

인천환경공단, 친환경 주말농장 무료 분양

인천환경공단 운북사업소가 다음달 21일까지 영종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주말농장 무료 분양 신청자를 모집한다.

친환경 주말농장 분양은 중구 영종도의 공단 운북사업소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마련했으며 분양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말농장은 가족농장 1면당 약 20㎡(6평)의 45면, 단체농장 1면당 약 33㎡(10평) 3면으로 총 48개의 텃밭을 확보해 영종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했다.

다음달 24일 진행되는 분양대상자 선정방법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추첨 대신 사업소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추첨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인천사서원,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함께 할 사회복지 · 유관 기관을 찾는다.

인천시 사서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에 참여할 사회복지 · 유관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존 돌봄 정책의 빈틈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더 나아가 제도화되지 않은 돌봄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회복지 · 유관 기관 11곳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기관 및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돌봄 · 요양, 일상지원, 건강지원, 안전,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추후 기관별로 모집하며 필요시 자체 대상자 외 타기관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기관 선정 이후 각 기관에서 사업을 맡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관 교류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 안종삼 기자

연수구 보건소, 심신 힐링 프로그램 진행

연수구 보건소는 다음달 10일부터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서적 건강을 위한 심신 힐링 프로그램 '아로마와 함께하는 명상'을 운영한다.

'아로마와 함께하는 명상'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긴장 완화 스트레칭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에 집중해 신체적 · 정서적 이완 △몸의 균형 회복 △아로마 향기를 느끼며 셀프 지압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1기는 10명을 선착순 모집해 다음달 10~31일까지 4회에 걸쳐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커뮤니티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7일부터 큐알코드 및 유선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종환 기자

인천시, 치매관리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가 2023년도 치매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속에서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산림치유 숲체험인 '힐링 숲'과 농림치유 프로그램인 '우울랄라 힐링팜'을 운영한다.

'힐링 숲' 체험은 신체활동에 제한이 없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천대공원 산림치유센터 및 월미도 숲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메타세콰이어 숲길 산책, 기 체조, 피톤치드 테라피와 단풍잎 활용 레크리에이션 등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울랄라 힐링팜'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반인들과 경도인지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종심기, 다육이 만들기, 천연염색하기, 제철채소를 활용한 요리 등을 체험한다. 안종삼 기자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선정

인천시, 3년간 국비 15억 지원
지역 특색에 맞는 마케팅 강화

인천의료관광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이 웰니스와 의료관광을 한 번에 치유과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힐링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새롭게 실시한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해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그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각각 선정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통합해 선정했다.

'치유 · 회복'이란 공동목적이 있는 두 분야를 연계해 코로나19 이후 성장할 의료 · 웰니스 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천사색(四色)-사색(思索) 쉼표, 인천'이란 주제로 4개의 웰니스 · 의료 권역을 선정하고 권역별 컨셉에 맞춘 특화상품 개발과 융복합 기반구축을 통해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시의 구상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웰니스관광 사업을 연계하면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할 주요 사업은 우선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색깔 있는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타깃 마케팅을 강화한다.

△도심권은 의료 · 뷰티 △송도권은 마이스(MICE) △영종권은 휴양 · 럭셔리 △강화 옹진권은 숲 · 자연치유가 중심이다.

또한 인천 웰니스 · 의료관광 융복합 기반을 구축한다.

웰니스와 의료관광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바이오 지역산업(바이오 · 헬스케어 · 뷰티 · 미용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업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검단 · 청라 · 루원 품은 인천 서구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 앞두고
현안 관리체계 등 개선에 나서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 청라국제도시 ·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현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서구는 구청 미래기획단이 앞으로 각종 도시개발 관련 민원 대응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총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구에는 청라 · 검단 · 루원 · 가정 · 검암 등 5개 구역에서 총 사업비 20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개발사업지 전체 면적은 30㎢, 계획인구는 33만명에 달한다.

이 중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올해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구는 이처럼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 도로 · 공원 · 하수도 등 기반시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구청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는 준공되지 않은 구역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기존 계획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민원 해결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구의 자체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민원이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막다른 왕복 2차로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측에 제기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 확보가 어렵다"며 설치를 거부했다.

서구 역시 "현 상황에서는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시설 설치만 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결국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지면서 회차로 설치 공간이 마련됐다.

서구 관계자는 "현안 관리체계를 개선해 신속히 민원에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 준공 전 적극적인 사전 점검과 하자 검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부평구 민생현장 방문 시민 목소리 청취

인천시-인천시의회
'우리동네 시청' 운영
주요 민생 현안 점검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기 위해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시는 27일 시 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 '우리동네 시청' 운영을 위해 지난달 계양구를 찾은 데 이어서 부평구를 찾았다.

이날 방문에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 건의 △십정2동 배드민턴장 설치 건의 △부개역 북부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 · 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임지훈 · 이단비 · 박종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시설물을 살피고 사업 추진사항을 살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총 13억원(추정 사업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부서가 함께 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임지훈 의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지붕형태가 돔형태로 돼 있어 자중에 의한 처짐에 따라 누수 및 눈부심 발생으로 안전문제와 민원의 원인이 되고 노후화된 장애인용 승강기는 크기가 협소해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 상황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시설물 관리주체인 부평구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하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 찾아

김찬진 동구청장, 23~24일
보육환경 점검, 어려움 청취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동구의 보육환경을 살피고 보육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등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김학선 인천시 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동구지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원아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살피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풀어 가겠다"며 "동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인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장애인 자립 일자리 · 재활시설 확대

장애인복지위 정기회의 개최
맞춤형 돌봄 등 주요사업 논의

인천시가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기타 안건 보고 및 위원들의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요구의 질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14개 과제, 120개 사업에 총 51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10% 가량 늘어난 11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38개인 직업재활시설도 39개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40개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건물을 확충하고 자립장애인의 자립경로 조성 및 주거, 일자리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 및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에도 나선다.

유정복 시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회의가 장애인 이웃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발전에 고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